



커뮤니티 알림: “사전 여행 허가서” 소지 중 해외 여행시 **3년** 또는 **10년** 입국 제한

2026년 8월 17일

주의사항: 이 자료는 전반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작성되었으며 귀하의 상황에 특정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한인 여러분께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변경된 규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고 개별 상황에 대해서는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8월 13일, 미국 이민항소법원(이민항소위원회, BIA)이 “사전 여행 허가서 (advance parole)”를 발급받아 출국한 체류자의 재입국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사전 여행 허가서”로 미국 밖으로 여행하려고 하고, 현재나 과거에 **180일** 이상 미국의 허가 없이 체류한 적이 있다면 귀하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귀하께서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출국 전 변호사와 상의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3년·10년 입국 금지 규정은 미국에 180일 이상 불법적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이 출국했을 시 재입국 및 영주권 신청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불법 체류 이력이 있더라도 “사전 여행 허가서”를 발급받아 여행하면 재입국 시 이 규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8월 13일부터 미국에서 출국 시 “사전 여행 허가서” 발급 여부와 상관없이 이 규정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뀐 규정에 누가 영향을 받게 되나요? 이번 판결로 인해 변경된 규정은 2026년 8월 13일 또는 그 이후 “사전 여행 허가서”를 소지하고 출국하는 사람 중 미국 내 180일 이상 불법적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3년·10년 입국 금지 규정은 무엇인가요? 이전에 불법적 체류를 한 사람이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입국 금지 판정을 받으면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발급받은 면제권 없이는 영주권 신청도 제한됩니다. 3년·10년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내 180일 이상 불법적으로 체류했으나 그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을 경우, 출국 후 3년간 재입국이 제한됩니다.
- 미국 내 1년 이상 불법적으로 체류했을 경우, 출국 후 10년간 재입국이 제한됩니다.

이번 이민항소법원 판결 이전에는 과거 불법적 체류를 한 이력이 있더라도 “사전 여행 허가서”를 받으면 3년·10년 입국 금지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미국 밖을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8월 13일부터는 “사전 여행 허가서”를 소지하더라도 면제권이 없으면 이 규정이 적용돼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면제권은 입국 금지를 당할 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가족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만 부여됩니다. 면제권 승인 여부는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결정합니다.

“사전 여행 허가서”는 무엇인가요? 사전 여행 허가서는 미국 정부에서 특정 이민자가 미국 밖을 단기간 여행하도록 허가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출국 전에 미리 미국 내에서 I-131 서류로 사전 여행 허가서를 신청합니다. 사전 여행 허가서는 미성년 입국자 추방 유예(DACA) 또는 임시 보호 신분(TPS)에 해당되거나, 영주권이나 망명 절차를 진행중일 때에 주로 발급받습니다.

“불법 체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미국 정부가 규정하는 “불법 체류”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미국 내 체류한 모든 기간을 말하며, 비자나 유예기간 만료 후 미국에 남아있었던 기간을 포함합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귀하의 상황에 적용되는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만 18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체류한 기간은 “불법 체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DACA와 TPS, 가족 결합 보호(Family Unity protection) 수혜 기간은 “불법 체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망명 또는 가족 망명·난민 신청 후 대기 기간은 “불법 체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TPS나 영주권으로 신분 조정 신청 후 대기 기간은 “불법 체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정 폭력 및 인신 매매 생존자는 피해 사실이 신분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판결 이전에 “사전 여행 허가서”로 출국한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나요? 판결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번 판결은 2026년 8월 13일과 그 이후 출국 건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13일 이전에 출국했을 경우,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마땅하지만 정부가 판결 이전 출국건 관련해 어떻게 법률을 해석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지인이 현재 “사전 여행 허가서”를 소지하신 상태로 미국 밖을 여행중이라면 이민 변호사와 안전한 재입국 방법을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전미이민법률센터(NILC)는 “사전 여행 허가서”를 받아 미국 밖을 여행하시려는 모든 분들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강권드립니다. 특히 이미 과거에 추방 명령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출국은 더욱더 위험하니, 꼭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밖은 물론 미국 내 여행 또한 비시민권자에게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행 전에는 변호사 상담과, 돌아오실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 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권합니다.

